

“한국 정치적 혼돈은 고질적 양극화·온라인 선동 탓”

외신, 윤 대통령 체포영장 대치 두고 배경 지목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한국 정치의 혼돈을 두고 외신들은 고질적 정치적 양극화와 온라인 선동을 원인으로 지목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공포와 음모론이 한국의 정치적 위기를 부추긴 방식’이라는 제목의 해설기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배후에 ‘마가(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있다면 윤 대통령에게겐 ‘대기기 부대’가 있다”고 썼다.

이 매체는 “그들에게 윤 대통령 수호는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중북주의자’들로부터 한국을 지키는 것과 동의어로 여겨진다”고 짚었다.

NYT는 윤 대통령과 우익 유튜버들은 한국의 선거결과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계엄선포 당시 부정선거 주장을 조사하기 위해 군인들을 중앙선관위에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체로 한국인들은 그런 음모론을 우익 유튜버들이 퍼뜨린 온라인 선동에 불과하다고

여기지만, 뿌리 깊은 정치적 양극화 속에서 그들(유튜버)은 윤 대통령의 상황을 둘러싼 혼란을 부추겨 열성적 신봉자들을 거리로 내보냈다”고 적었다.

NYT는 윤 대통령과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주장과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튜버는 선호하는 정보를 더 많이 보여주는 알고리즘을 채택, 사용자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에 빠지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한국의 정치가 그런 함정에 빠져 양쪽 극단화로 치달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NYT는 한국언론재단이 2022년 실시한 조사를 인용, 한국의 경우 국민의 절반이 넘는 53%가 유튜버를 통해 뉴스를 소비하며 이는 세계 46개국 평균(30%)의 갑절에 육박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AFP 통신도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을 친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모호한 음모론’을 되뇌고 있다고 주목했다.

이 매체는 국회가 윤 대통령을 탄핵한 외증에도 유튜버들의 발언에 자극받은 소수의 집단이 그를 보호하려 나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더타임스의 일요판인 선데이타임스는 ‘한국에서 실제 삶이 소셜보다 더 이해된 이유’라는 해설기사에서 한국 사회가 오랜 분열에 찢어지다가 모든 국가적 상처가 이번엔 공개적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13년째 서울에 살고 있는 영국 출신의 프리랜서 기자 라파엘 라시드는 이 기사에서 “서울에 살면서도 현대 한국의 모순을 이번처럼 극명하게 느낀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나라는 케이팝과 각종 상을 받은 영화, 오징어게임이나 지금 우리 학교는 같은 넷플릭스 인기작들로 전 세계에 스스로를 능수능란하게 내보냈지만, 반짝이는 표면 아래에선 오랜 상처와 새로운 위기들이 사회를 찢어놓고 있다”고 적었다.

라시드 기사는 “서울의 대통령 관저 바깥에선 매일 같이 이런 격렬한 분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난 금요일 윤 대통령의 체포없이 끝난 6시간 동안의 대치는 (한국의) 미래가 여전히 얼마나 불확실한지 일깨워줬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가 대통령 체포 및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美 공화당, ‘트럼프 공약’ 국경·감세 단일 법안 처리 가닥

정권 출범 초기 ‘원샷’ 처리 판단... 4~5월 처리 자신

미국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세금 감면과 불법 입국 차단을 하나의 ‘메가(mega) 법안’으로 만들어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보도했다.

이는 당내에 불법 이민자 문제와 감세 확대·연장을 단계적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여전히 있지만, 의회 상황이나 내년 11월 중간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정권 출범 초기에 ‘원샷’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지난 4일(현지시간) 동료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의회 전략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원한다고 설명했다.

존슨 의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메가 법안’에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에 필요한 예산을 비롯한 국경 안보 사항 ▲올해 만료되는 트럼프 감

세 연장 문제 ▲부채하도 인상 내지 폐지 ▲연방 정부 규제 축소 ▲딥스테이트(연방 정부 내 기득권 공무원 집단) 해체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이 4월 말께 아니면 5월까지의 확실한 의회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존슨 의장은 “아무도 이와 같은 대규모 법안의 모든 요소를 좋아하지는 않겠지만, 모든 사람을 모으는 데 필요한 요소들이 있을 것”이라면서 “하나의 법안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부 이슈에 대해 자신들의 선호가 모두 반영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일본, 노동생산성 20년만에 상승

OECD 38개국 중 29위

한국, 53.3달러로 33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노동생산성 비교에서 일본 순위가 20년 만에 상승했다는 일본 연구기관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공익재단법인 일본생산성본부에 따르면 2023년 일본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6.8달러로 OECD 38개국 중 29위였다.

이 조사에서 일본은 1970년부터 2018년까지 20

위 안팎을 유지했으나, 2019년 25위를 기록한 뒤 계속 하락해 2022년에는 역대 최저인 31위까지 떨어졌다.

노동생산성은 노동자가 일정 시간 내에 창출하는 물품과 서비스 가치를 뜻한다.

요미우리는 “2023년 일본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이 정상화됐고 경제성장률도 상승한 것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본생산성본부는 “순위 하락에 제동이 걸렸다”며 “실질 노동생산성 상승률은 1.2%로, OECD 국가 중 9위였다”고 분석했다.

다만 생산성본부는 “일본의 노동생산성을 미국

과 비교하면 1인당 55%, 시간당 58% 수준”이라며 1990년대와 비교하면 미국과 격차가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2023년 시간당 노동생산성 1위 국가는 아일랜드(154.9달러)였다. 이어 노르웨이(136.7달러), 룩셈부르크(128.8달러), 벨기에(112.8달러), 덴마크(103.9달러)가 2~5위에 올랐다. 한국은 53.3달러로 33위였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3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젤렌스키, 트럼프에 구애

“전례없는 강자가 전쟁 끝낼 것”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쟁을 유리하게 끝내기 위한 전략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향한 정송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내들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과학자 렉스 프리드먼의 미국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전례 없는 영향력을 보인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책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는 러시아의 침공전을 멈출 방안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의지뿐만 아니라 모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며 “그냥 말치레가 아니라 나와 우리 국민은 진짜 그에게 믿고 기댄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압박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번 인터뷰는 트럼프 당선인에 더 친밀하게 다가가려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접근으로 평가된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트럼프 당선인 개인에 대한 찬사를 쏟아냈다. 외교가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비판에 극도로 예민한 반면 아부에 쉽게 흔들린다는 평가가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유럽국 정상들의 반응을 볼 때 트럼프 당선인의 영향력이 미국 대통령 역사에서 전례가 없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내가 직접 만나든지, 전화하든지 도널드 트럼프와 뭔가를 얘기했을 때 모든 유럽 지도자가 ‘어떻게냐’고 항상 묻는다”며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영향력을 입증하는 것이며 미국 대통령과 관련해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은 아예 없었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의 이같은 영향력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찬사는 작년 11월 미국 대선에서 고배를 든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가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저평가하는 수준으로까지 이어졌다. 정적에 대한 비판도 미국 정치인들이 트럼프 당선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용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당선인이 바이든 대통령, 해리스 부통령보다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적으로 육체적으로’ 힘을 입증했다며 “강한 국가를 가지려면 (지도자가) 강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그는 강하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구애 전략이 통할지는 현재로서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당선인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국 전쟁에 서방의 전례 없는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역대급 세일즈맨’이라고 조롱해왔다. /연합뉴스



wilo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